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(가)**  이 중에 시름없으니 **어부(漁父)**의 생애로다  **일엽편주**를 만경파(萬頃波)에 띄워 두고  **인세(人世)**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 <제1수>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 십장 홍진(十丈紅塵)이 얼마나 가렸는가  강호에 월백(月白)하거든 더욱 무심(無心)하여라 |  |  | |  | |  |  | | | **[A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 <제2수>  청하(靑荷)에 밥을 싸고 **녹류(綠柳)에 고기 꿰어**  노적 화총(蘆荻花叢)에 배 매어 두고  일반 청의미(一般淸意味)를 어느 분이 아실까  <제3수>  ㉠ **산두(山頭)에 한운(閑雲) 일고 수중(水中)에 백구(白鷗) 난다** 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㉡ **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**  <제4수>  - 이현보, 『어부단가』 -  **(나)**  때마침 부는 **추풍(秋風)** 반갑게도 보이도다 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 흰 두건을 젖혀 쓰고 **소정(小艇)**을 타고 오니  ㉢ **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**  **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**  갈잎에 닻 내리고 그물로 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(紫鱗銀脣)\* **수없이 잡아내어**  연잎에 담은 회와 항아리에 채운 술을  **실컷 먹은** 후에 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 희황천지(羲皇天地)\*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 추월(秋月)이 만강(滿江)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 문득 의심은 월궁(月宮)에 올랐는 듯  물외(物外)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|  |  | |  | |  |  | | | **[B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 청경(淸景)을 다투면 내 분에 두랴마는 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㉣ **아이야 닻 들어라 만조(晩潮)에 띄워 가자**  푸른 물풀 위로 **강풍(江風)**이 짐짓 일어  귀범(歸帆)을 재촉하는 듯 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 잠깐 사이 날개 돋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 연파(烟波)를 헤치고 월중(月中)에 돌아오니  ㉤ **동파(東坡) 적벽유(赤壁遊)\*인들 이내 흥(興)에 미치겠는가**  강호 흥미(興味)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- 박인로, 『소유정가』 -  \*자린은순: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.  \*희황천지: 복희씨(伏羲氏)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.  \*동파 적벽유: 중국 송나라 때 소식(蘇軾)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. |